"청탁 없었다" 진보정치 아이콘 허망한 투신

'드루킹 의혹'에 스러진 노회찬

의혹보도에 심리적 부담감 극단적 선택 원인이 된 듯

대표적 진보 정치인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비극적 사망에 이른 것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댓글조작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드루킹 사건이 윤곽을 드러낸 것은 네이버와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에 따라 지난 3월 경찰이 드루킹 일당의 '아지트'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하고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을 이용해 정부 비판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드루킹을 체포하면서다.

단순히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끝날 뻔했던 이 사건은 민감한 정치 이슈로 급부상했다. 언론을 통해 드루킹과 그 일당 일부가 민주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 국회의원)가 이들의 댓글조작에 연루된 의혹이 보도되면서다.

드루킹이 댓글조작을 벌인 대가로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을 인사청탁하고,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그의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건넨 사실을 빌미로 김 지사를 협박한 사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야당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같은 사건 흐름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노 원내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거명된 것은 경찰이 벌인 경공모 계좌추적 결과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연간 10억원이 넘는 경공모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쫓는 과정에서 2016년 3월 경공모가 5000만원을 인출해 노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정황이 담긴 회계 장부와 메신저 채팅 내역을 파악했다. 일부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실제로 금품 전달에 관여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2016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시간 부족 등으로 노 원내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지 못했다. 대신 사건을 그대로 특검에 넘겼다.

지난달 27일 공식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경찰이 넘긴 노 원내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분류하고 경공모 측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특검이 노 원내대표의 불법자금 의혹을 수사 중이란 보도가 나올 때마다 그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그에 대한 금품 전달을 기획한 드루킹 최측근 도모(61) 변호사를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거듭 박차를 가했다.

법원은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은 금품이 전달된 것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특검 측의 수사 방향과 거듭된 언론의 의혹 보도가 노 원내대표의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하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드루킹의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에 지난해 5월 정의당과 노 원내대표에게 경고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은 이 글에서 "정의당과 심상정 패거리들…민주노총 움직여서 문재인 정부 길들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미리 경고한다.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방에 날려버리겠다"고 주장했다. 이 트윗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모 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당사자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시 중구의 한 아파트 현관 쪽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007년 5월 강원도 철원을 방문해 금강산 철교를 둘러보는 노 원내대표. /연합뉴스

■노회찬 드루킹 금품수수 의혹 수사 일지

2016년

- **상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드루킹 일당 '노회찬 5천만원 전달 의혹' 수사 의뢰
- **10월 1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드루킹 일당 '노회찬 의원 부인 운전기사 장모씨에 200만원 제공' 혐의로 기소
- **12월** 경기도 파주경찰서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노회찬 5천만원 전달 의혹' 무혐의 처분.
- **12월 1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운전기사 200만원 제공' 사건 1심 선고. 드루킹 김동원 벌금 600만원 · 운전기사 장씨 벌금 200만원

2017년

- **5월 24일** 서울고법, '운전기사 200만원 제공' 사건 2심 선고. 드루킹 김동원 벌금 600만원 · 운전기사 장씨 벌금 200만원. 판결 확정.

2018년

- **6월 27일** 허익범 특별검사팀 공식수사 개시
- **7월 10일** 특검, '불법자금 수수 의혹' 노 의원 부인의 전 운전기사 장씨 소환조사
- **7월 11일** 특검, 노 의원 계좌추적 착수
- **7월 17일** 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전달 기획' 도모 변호사 긴급체포
- **7월 18일** 노 의원, '여야 5당 원내대표 미국 순방' 출국
- **7월 18일** 특검,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 **7월 19일**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 **7월 22일** 노 의원, 귀국
- **7월 23일** 노 의원 서울 중구 아파트서 투신 사망

연합뉴스

'노회찬 투신' 정치권 침통 "전날도 같이 귀국했는데"

여야 정치권은 23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이하 의원)이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과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당초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을 긴급히 취소했다. 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평화당 조배숙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내내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다.

조 대표는 "노 대표님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조의를 표했고 김병준 위원장도 "우리 정치가 이렇게 비극적일까, 이런 정치가 해결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가지로 답답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비통함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노 의원의 사망에 관해 "정말 가슴 아프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애도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삼성X파일' 폭로…촌철살인 사이다 발언 인기

진보정치 상징 노회찬은 누구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심상정 의원 등과 함께 한국 진보정치계의 대표 정치인이었다.

시대를 앞서는 생각을 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점잖다는 평을 받았다. 또 재치있고 논리적이며 대중 친화적인 언변으로 큰 인기를 얻어 소수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정의당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노 원내대표는 고등학생이던 1973년 당시 유신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면서부터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이후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노동을 하며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17대 총선 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 이듬해 8월 옛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19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 지역구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으나, 곧이어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확정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절치부심하던 끝에 20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이 아닌 경남 창원 성산을 지역구로 내려가 악전고투 끝에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당선되며 다시 진보정치계의 대표주자로 우뚝 섰다.

최근에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받은 특활비를 일괄 반납하기로 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광장' 최인훈 별세…향년 84세

소설 '광장' 등으로 한국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작가 최인훈이 23일 오전 10시 46분 별세했다. 향년 84세. 〈관련기사 17면〉

고인은 4개월 전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

1934년(공식 출생기록은 1936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월남했다. 195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6학기를 마쳤으나 전후 분단 현실에서 공부에 전념하는 데 갈등을 느끼고 1956년 중퇴했다. 1958년 군에 입대해 6년간 통역장교로 복무했고, 1959년 군 복무 중 쓴 단편소설 '그레이 구락부 전말기'와 '라울전(傳)'을 '자유문학'지에 발표하며 등단했다.

이듬해 4·19혁명이 있고 7개월 뒤인 1960년 11월 '새벽'지에 중편소설 '광장'을 발표했고 출간 이후 현재까지 통쇄 204쇄를 찍었다. '광장'을 필두로 그는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 분단 현실을 문학적으로 치열하게 성찰했다.

'회색인'(1963), '서유기'(1966), '총독의 소리'(1967~1968) 연작, '화두'(1994),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태풍', 등 소설과 희곡집 '옛날 옛적에 훠어이 훠이', 산문집 '유토피아의 꿈' 등을 냈다.

동인문학상(1966), 한국연극영화예술상 희곡상(1977), 이산문학상(1994), 박경리문학상(2011) 등을 받았다. 1977년부터 2001년 5월까지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교수로 많은 문인 제자를 배출했으며 퇴임 이후에도 명예교수로 예우받았다.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다. /연합뉴스

'정전협정 65주년' 남북미 종전선언 주목

오는 27일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가운데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둘러싼 남북미 3자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3일 '종전선언 문제, 결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최근 입장을 바꿔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판문점 선언의 조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남조선 당국도 종전선언 문제를 결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물론 남한도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메시지다.

북한 '외곽 매체'의 보도이지만 지난 6~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를 계기로 북한이 종전선언을 강조하고 있는 흐름 속에 정전협정 체결일을 나흘 앞두고 나온 입장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연합뉴스

전남도 신임 행정부지사에 박병호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전남도 신임 행정부지사에 박병호(56·사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장은 민선 6기 광주시 행정부시장도 지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30일 자로 예상되는 행정안전부 인사에서 박 원장은 신임 전남도 행정부지사로 내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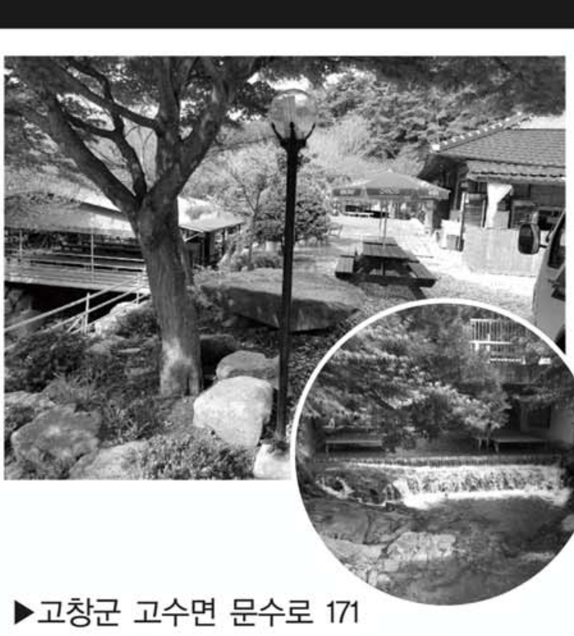
전남도의 제청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박 원장은 이재영 행정부지사로부터 부지사직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원장은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부시장과 부지사를 모두 역임하게 됐다.

박 원장은 광주 인성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0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광주시의회 사무처장,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조직·제도정책관 등을 지냈다.

박 원장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행정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선 6기 전남지사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재영 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으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 기자 cki@

임야·삽니다
당일 매입가능, 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펜션·가든 부지 매매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장성 편백숲 5분거리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사주학의 대가
동광스님비법공개
40년 내공으로 완성한 사주학 비법을 공개합니다
- 사주역학 학당 개설 -
●일시 :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 6시
●장소 :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미쇼핑 2층 (일월사 포교원)
●대상 : 사주학, 역학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학당에 참석하셔서 새로운 사주학의 비법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교원 (062) 524-8020
원 장 010-8024-1433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임대 741㎡, 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7억 ◈
(조정가)
인 하 건 설 (주)
010-3605-0214
062) 655-4840